

제2편 마을이야기 Ⅰ

제11장 종천면(鍾川面)

제3장 종천면(鍾川面)

종천면은 신석기시대부터 인류가 정착하기 시작하던 곳으로 마한 때 비리국(卑離國)이라는 부족연맹체(部落聯盟體)에 속했었다. 백제 때 비중현의 고을이 종천면 지식리에 있었으므로 비중현에 속했던 지역이며, 신라시대에는 서림군의 영현인 비상현에 속했었다.

고려 때는 임천에 속한 비인현 소속이었고, 조선 초 1413년(태종 13)에 비인현에 속했다가, 조선 말 비인군의 지역으로 이방면이라 하여 담화(談花) 외 16개 동리를 관할하다가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일방면의 당동 외 13개 동리와 동면의 궁동리 일부, 북면의 미력리 일부, 서천군 장항면의 구암·당산·화호·지석 등 4개 동리를 통합하여 이 지역에 있는 종천의 이름을 따서 종천면이라 했다. 랑평·당정·도만·산천·석촌·신검·장구·종천·지석·화산·홍림의 11개리를 개편 관할하다가 1973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6542호에 의해 홍림리를 분리하여 판교면에 편입시키고 현재는 10개리를 관할하며 서천군에 속해있다.

특히 종천면 지식리는 신석기시대부터 인류가 살기 시작한 곳으로 서천군에서는 처음으로 부락국가가 형성되었던 곳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백제 때 비중현의 고을도 지식리 동문(東門) 들에 자리 잡고 있었다는 설이 있는 등 서천군 옛 문화의 발상지로서 주목되는 지역이다.

종천면은 총 2,642ha(경지 830, 임야 1,450, 기타 362)의 면적에 2006년 12월 31일 현재 1,097세대 2천6백47명이 모여 살고 있는데, 군내에서 유일하게 각 기관이 동부와 서부로 분산되어 주민들이 다소 불편을 겪고 있기도 하다.

지역적인 여건이 해안지대와 산간지대로 나뉘어 형성되고 있으며, 해안에 인접한 10개 마을(행정리 단위)에서는 해태 양식과 어패류 채취 등으로 소득을 올리며, 8개 마을의 내륙지대는 미곡·특작·축산 등 복합영농에 종사하고 있다. 서부특용작물재배단지인 신검·랑평·종천·당정리 등은 수박, 딸기, 쪽파 등을

재배하여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으며, 지역의 산천이 수려하고 물이 좋아 서천군 내 일부 지역의 상수원을 보유하고 있기도 하다. 또한 석촌리에는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어 지역 산업의 일원을 담당하고 있다.

지석리 3층석탑은 문화재 자료 131호로 지정 관리되고 있으며, 산천리와 장구리 일대의 산성과 지석리 주변의 고인돌, 영수암 등이 지역의 역사를 나타내 주고 있다.

희리산은 지역의 명산으로 많은 등산객이 찾고 있으며, 자연휴양림이 조성되어 휴가철이면 지역은 물론 외지인들에게 각광을 받고 있다. 또한 희리산은 명창 이동백이 득음하던 곳으로도 유명하며 지금도 동굴이 보존되어 있다고 한다.

종천면에는 2008년에 전국 최대 규모의 어메니티 복지 마을이 개관되어 노인 전문병원 및 노인복지관과 장애인 종합복지관 등이 마련, 노인과 장애인들의 요람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신검리(新儉里)

종천리에서 새로 포장된 중판도로를 따라 가다보면 그 첫 마을인 신검리에 이르게 된다.

신검리는 백제 때 비중현 소속이었고 신라시대 서림군의 영현인 비비현에 속했으며, 고려 때는 임천의 비인현 소속이었다. 1413년(태종 13)에 비인현에 속했고, 조선 말 비인군 일방면의 지역으로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신검리와 북면의 미력리(未力里) 일부를 합하여 새롭게 전답이 펼쳐지는 지역이라 해서 신

검이라 했으며, 서천군 종천면에 편입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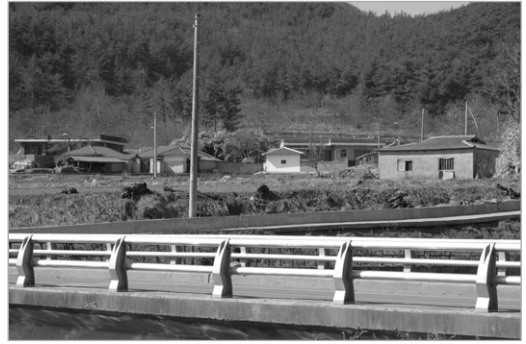
신검 북동쪽에 다리가 있는데 이 다리를 개복다리라고 하며, 고려 때 부터 돌로 놓은 다리로 고려와 조선에 걸쳐 많은 애환이 깃들어 있는 다리이다. 다리 곁에 자리 잡은 마을은 다리 이름을 따라 개복다리 부르며, 판교면 인접지에는 개복다리 저수지라 칭하는 저수지가 있다.



〈사진 1〉 신검리 전경



〈사진 2〉 개복다리저수지



〈사진 3〉 개복다리

랑평리(朗坪里)

랑평리는 백제 때 비중현 소속이었으며, 신라 때는 서림군의 영현인 비비현에 속했고, 고려 때 임천에 속한 비인현 소속이었다. 조선시대에는 비인현이었다가 조선 말 비인군 일방면의 지역으로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낭동리와 정평리를 합하여 랑평리라 해서 서천군 중천면에 편입되었다.

숫등메라 부르는 이 마을은 이 부근에 북종형(伏鍾形)의 대지가 있다는 수려한 마을이며, 정평이라고도 부른다.

낭골 서쪽으로 있는 마을은 주래 또는 조래라고 부르며, 옛날부터 배가 뜨게 되면 마을이 크게 될 것이라는 설이 전해지고 있어 배를 기다린다는 뜻의 주래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정평 서남쪽 마을을 낭골이라고 부르는데, 낭골의 중심마을을 작은 낭골, 낭골 동쪽 지역을 큰 낭골이라 한다. 낭골 서남쪽으로 새로 생겼다 해서 새터라 부르는 지역이 있고, 동북쪽 골짜기를 고양골이라고 한다.



〈사진 4〉 랑평리 전경



〈사진 5〉 400여년 된 은행나무



〈사진 6〉 효자 김광제 효행비

마을 중심지에 있는 4백여 년 된 은행나무는 마을의 수호신 역할을 담당하는 목신으로, 둘레가 4.8m 높이가 14m 정도 된다. 50여 년 전 한 할머니가 자식이 없어서 은행나무 밑에서 빌었는데 자식을 얻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그 후 마을에서는 이곳에 제사를 지내자고 결정하여 매년 음력 정월 초하룻날 새벽 5시경에 제를 올리게 되었다.

10여 년 전에는 은행나무가 운다고 하여 불길하게 여긴 마을 주민들이 통돼지를 제물로 하여 목신제를 지내고 종일토록 풍물치고 굿을 했다 하며, 그 후에는 울음소리가 나지 않았다고 한다.

이처럼 주민들은 목신인 은행나무에 제를 지내야 마을이 평안하다고 믿고 있다. 한국전쟁 때는 마을에 희생자가 한 사람도 없었으며 출향인에게도 불상사가 없어 목신제 탓으로 믿고 있다.

목신제는 목신인 은행나무에 왼새끼를 꼬아 둘러놓고 제가 시작되면 계장이 재배하고 술잔을 올린 후 다시 재배하고 퇴주잔의 술을 세 군데 나누어 부으며 이를 세 번 반복한다. 제가 끝난 후 소지를 올리고 음복을 하는데 이 떡을 먹으면 그해 일 년 동안 재수가 좋다고 하는 말이 전해지고 있다. 당일에는 제물을 나누어 먹으며 주민들이 하루를 즐긴다.

제는 대동계의 계장이 제관이 되어 주관하며, 제의 경비는 동답을 경작하는 사람이 부담한다. 동답 4백평의 경작은 2년마다 제비를 뽑아 결정한다. 제물을 마련 할 때는 물건 값을 깎지 않는 것을 상례로 하고 있다.

마을에는 1413년 마을에서 세워준 효자 김광제 효행비가 있다.

종천리(鍾川里)

종천리는 백제 때 비중현 소속이었고, 신라때에는 서림군의 영현인 비인현에 속했다. 고려 때는 임천의 비인현이었으며 1413년(태종 13)까지 비인현이었다가 조선 말 비인군 일방면의 지역으로 북내가 있다 해서 북내 또는 부내, 종천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어라리, 보현리, 종천리와 보도리, 하외다리(下外多里)의 각 일부를 합하여 종천리라 해서 서천군 종천면에 편입되었다.

부내 서쪽의 비인면으로 가는 고개를 어랭이재라고 하며, 그 아래에 있는 마을을 어랭이라고 한다. 어룡재(魚龍재)가 변해서 어랭이재가 되었다고 전한다.

부내 서쪽에 있는 산을 용산(龍山)이라고 하는데, 이는 산 아래 용이 살았다는 용 못이 있는 산이라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낡은 절터 남쪽으로 새절터가 있으며, 임진왜란 이후에 절이 없어졌다고 전한다.

어랭이재 동쪽으로 종천이 있으며, 이곳은 이토정(李土亭)이 찾던 명당자리가 있다 하는데, 명당을 제대로 찾으면 크게 번성할 마을이라고 전해지며, 냇물에서 물이 흐를 때 또는 마을 땅속에서 가끔 명당의 종소리가 들린다 해서 종천이라는 지명이 붙여졌다 한다. 마을에 종천치안센터와 우체국, 농조, 서천농협지소 등이 자리 잡고 있으며, 주로 딸기·수박·쪽파 등의 특용작물과 부녀자들의 어패류 채취로 타 지역에 비해 소득이 높은 곳이다.

종천리는 1·2·3리로 나뉜다. 국도 21호선 옆 전 양조장 앞에 고인돌이 있으며, 현재는 덮개돌이 서쪽으로 기울어져있고 동쪽 면에는 김돌이 드러나 있다.

마을 뒷산인 문수산 골짜기에 소류지를 만들어 그 물을 이용하여 쪽파·수박·딸기 등 특작물에 전념하고 있는 마을이다.

종천2리는 장항읍민들의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수원지가 있는 곳이며, 백운마을이라고도 하고, 특히 오늘날까지 전해 오고 있는 백운산신제가 2백여 년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유서 깊은 마을이다.

마을 안에 서 있는 팽나무는 백운마을에 세 집 밖에 없을 때부터 있었다는데 수백 년 전 나무라고만 전해지며, 지금은 한



〈사진 7〉 종천리 마을 전경



〈사진 8〉 팽나무가 있었던 자리

쪽가지가 고사되어 마른가지를 드러내고 있다.

백운마을은 배암골로도 불리는데, 그 이유는 마을에 항상 흰구름이 떠있어 장수(長壽)에 좋은가 하면, 풍수설에 따르면 이무기가 될 뱀이 항상 땅속에 있다가 이슬이 내리는 새벽이면 하늘을 보고 운다는 하늘마을이란 뜻에서 백운동 또는 배암골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한다.

문수골이라는 곳에는 낡은 절터와 새절터가 있으며 새절터는 매우 넓어 큰절이 있었다고 전해지는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관심 있는 사람들이 드나들었다고 한다.

이 절은 암행어사 박문수가 이곳 골짜기를 지나면서 “하필이면 이 골짜기에 절 이람” 하며 부채로 절을 가리고 갔다고 한다. 그 후 절이 없어지고 이곳 사람들이 어사 박문수가 정언(正言)을 남기고 간 골짜기라 해서 문수골이라고 했다는 말이 전해진다. 그곳에 마을의 젓줄인 소류지가 생겼다.

마을 산제는 정월 초나흘날 시작해서 초닷새날 대동회와 연결하여 마을 잔치를 벌이는데, 선달 보름날 제주를 선정한다. 제주는 부정한 것을 보지 않고 정월 초하루부터는 전 주민이 비린 것을 먹지 않는 등 정성을 들였으나 최근에 와서는 다소 완화되었다고 한다. 문수산에 있던 산제당은 석산개발로 인해 아래쪽으로 새로 옮겨지어졌으며, 산제에 드는 비용은 마을 동답 9백 여 평을 경작하여 마련한다.

종천리에는 수원지가 있어 몇 년 전만 해도 봄이면 벚꽃이 아름다워 군내 많은 사람들이 유원지처럼 찾았으며, 학생들의 소풍지로도 알려져 있었다. 이곳을 사기점골이라 하는데, 진입로에 편백나무가 가로수 터널을 이루고 있다. 사기점골은 조선 초기 분청사기를 굽던 가마터가 있어 붙여진 이름으로, 종천면 종천리 산1번지 사기점골에 도기소가 있었다는 기록이 있으며, 이곳에는 분청사기를 굽던 가마터 흔적이 남아 있었으나, 지금은 그 형태를 짐작하기 어렵다. 지금도 이곳에는 자기편과 불에 탄 흙 등이 발견되고 있다. 또한 사기점골에는 고분군이 있는데 훼손이 심하여 확인하기가 어렵다.

종천면 종천리 마을 앞에 펼쳐진 들을 명당터라고 말하며, 부내복종의 터라고 말한다. 넓은 들 명당자리를 파면 제일 먼저 금싸라기 서되가 나오는데 이 자리를 발견하고 묘를 쓴다면 재상은 물론이요 일주를 호령하는 사람이 나온다는 명당자리라 하며, 풍수에 밝은 토정 이지함도 못 찾았다는 곳으로 지금까지 수수께끼로 남아있다.

이곳에는 다음과 같은 전설이 전해지고 있다.

조선시대 우리나라가 청나라와 친하게 지내어 우리나라에서 때때로 사신을 보낼 때다. 그래서 특별한 일이 없어도 일 년에 몇 번씩 청나라를 드나들었는데, 그

해엔 왕께서 마음씨가 곱고 예의가 바른 한 선비를 추천하여 보내기로 했다. 왕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선비는 자기일보다 나라일에 온 정신을 바치는 깨끗한 선비였었다. 그는 그래서 예의바른 사람으로 청나라에 건너가서는 청나라의 왕은 물론 여러 중신들로부터 많은 호감을 받으면서 일을 잘 처리했다. 그가 떠나올 때는 그들로 하여금 아쉬워서 몇 달만 더 쉬었다 갈 수 없느냐고 간청할 정도였는데, 그때 청나라에서 풍수에 밝은 도학자가 특별히 그에게 당신 같은 선비의 후손들은 당신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 나올 것이라고 선물로 부채 하나를 주었다. 그 부채에는 지도가 그려져 있었는데 도학자는 그 지도가 가리키는 곳에 가서 땅을 파보면 금싸라기 서 되가 나올 것이라 하며, 당신의 나라에 가거든 그 장소를 남몰래 잘 봐두었다가 당신의 직계되는 사람의 묘를 쓰면 집안이 크게 되며 영화를 누릴 것이라 하였다. 그 사신은 배를 타고 여러 중신들의 전송을 받으며 중국을 떠났다. 육지를 떠나서 얼마나 되었을까 잠깐 눈을 붙이고 깨어서 선상에 오르니 망망대해에 나와 있었다.

날씨가 무더워 선물로 받은 부채를 꺼내들고 선상에서 부치다가 그 지도를 보며 희한한 산골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배가 갑자기 크게 흔들리고 바람이 휩 불더니 그가 들고 있는 부채가 바람에 날려 바다에 떨어져버렸다. 그는 부채가 아쉬웠지만 풍수에 그리 관심이 없기 때문에 버려두었다.

그가 우리나라에 와서 여러 벗들과 중국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다가 부채 이야기가 나왔다. 그는 이런 도학자로부터 지도가 그려져 있는 부채를 받았는데 더워서 땀을 식히다가 바다에 빠트렸다는 이야기를 하자 선비들은 경탄을 하며 아쉬워하는 것이었다. 그는 그 후 부채 이야기도 잊어버리고 정사에 바빠 움직이다가 몇 년 후에 한가한 직책에 머무르게 되면서 부채에 그려진 지도를 생각하다가 그런 지형은 찾으려 있으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길을 떠났다.

그는 전국을 누비다가 충청도 서천에 오게 되고 종천에 들어서 여기저기 지형을 보고 다니다가 언뜻 앞을 바라보니 여기가 틀림없는 그 부채 속의 명당자리와 똑같다는 생각을 했다. 그래서 그는 여기에 짐을 풀고 그 자리를 찾아 나섰다. 그는 사람을 사서 짐작이 가는 곳의 땅을 파보았다. 그러나 금싸라기는 나오지 않고 며칠을 두고 파다가 그냥 허탕을 치고 돌아간 후 다시 내려오지 않았다.

그가 죽은 후 종천땅의 부내복종터를 부르는 명당터 이야기는 전국에 알려졌고, 풍수지리사들의 발길을 재촉하였으나 끝내 발견하지 못했다. 몇 년이 흐른 뒤 이지함에게도 이 소식이 들려왔다. 그는 이 소식을 듣자마자 펄쩍 뛰더니 “그게 명당이다!” 하고선 그길로 달려와서 백일동안 기도를 올렸다. 그가 기도를 올

린 지 백일이 가까워 왔을 때 그의 꿈속에서 산신령이 나타나서 그에게 말하기를 “그대의 정성에 뜻이 있는 것 같아 내가 이 명당터를 가르쳐줄 테니 그대는 구경만 하여라” 하고 지형과 장소까지 가르쳐 주므로 그는 여러 번 머리를 숙이고 꿈에서 깨어난 후 노을이 밝아오자 그곳으로 달려가 봤다. 산신령이 가르쳐준 장소를 발견하고 풀을 뜯은 다음 살짝 땅을 파봤다. 땅을 깊이 파지도 않았는데 금싸라기가 손에 잡혔다.

“바로 여기가 명당이다” 그는 이렇게 기뻐하며 땅을 도로 파묻고 장소를 알아두기 위해 곁에 있는 지장풀을 묶어서 표시를 해뒀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는 기쁨을 감추지 못하다가 스르르 잠이 들었는데 그때 꿈속에 그 산신령이 나타났다. 산신령은 노한 얼굴로 “누가 명당자리를 구경하러 했지 그 장소에다가 표를 해놓으라고 하였느냐. 다시 가서 찾아봐라” 하고 바빠 사라졌다. 토정은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산신령이 시키는 대로 그 장소에 가봤다. 그런데 한곳에만 묶어서 표시하였는데 온통 그 부근의 지장풀이 모두 묶여있었다. 그래서 자기가 처음 땅을 파던 곳에 가서 땅을 파봤으나 틀림없이 있던 금싸라기가 나오지 않았다. 그 옆을 파봤으나 마찬가지로 없었다. 아무리 주위를 파 봐도 금싸라기는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찾지 못하고 돌아와서 또 잠이 들었는데 산신령이 또 나타났다.

“그대는 산세 지세를 잘 볼 줄 아는 학자이기에 내가 진짜 명당자리는 이런 곳이라고 가르쳐준 것이지 그대가 쓸 명당은 아니야” 하고는 사라졌다.

그래서 토정은 발견 하였으나 두 번 다시 보지 못하고 떠났다. 그가 죽을 때 그도 “천하의 명당은 종천에 있는데”, 하고 죽었다는데 그의 말을 들은 풍수지리사들이 종천들을 쑥밭으로 만든 것은 물론이다.



〈사진 9〉 어메니티 복지마을

지금까지 발견되지 않은 명당터는 종천1, 2구와 랑평리, 신검리 근처의 들이라 전해지는데, 지금도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이 드나들며 나름대로 명당이라고 묘를 쓰고 있지만 금싸라기가 나오는 명당터는 발견 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부내복종터가 있다 해서 이 지역을 종천이라고 부른다 한다. 명당터가 발견 되면 이 고장이 크게 발전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당정리(堂丁里)

당정리는 백제 때 비중현 소속이었으며, 신라때 서림군의 영현인 비비현에 속했었고, 고려 때는 임천의 비인현에 속했다. 조선시대 비인현이었다가 조선 말 비인군 일방면의 지역으로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금정리(金丁里)와 당동(堂洞), 물거리(勿去里), 보도리(保道里)의 각 일부를 합하여 당동과 금정리의 이름을 따서 당정리라 하여 서천군 중천면에 편입되었다.



〈사진 10〉 당정리 마을 전경

웃골 북쪽으로 있는 마을을 뚜드령이라고 한다. 옛날부터 당정2리에는 오당(五堂)이라는 명칭이 있는데, 오당이란 사당호·당산재·지당·서낭당·아래당을 칭하는 명칭이다. 뚜드령이에서 북쪽으로 한티라는 절터가 있는데, 이곳에 올라가서 이 마을을 쳐다보면 왼쪽으로 갈목과 오른쪽으로 다사리가 보이고 가운데에 볼록하게 나온 곳이 노리정이라고 하는 곳으로 부내북종의 종채 끝 지당을 붙들고 뚜드려야 부내북종에 복이 온다 하여 뚜드령이라 부른다고 전한다.

옛날에는 신당이 있어서 굿을 하느라고 날마다 북을 치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하며, 당정리의 으뜸 되는 마을이다.

개망굴 서쪽에 있는 마을을 삼막굴이라 하며, 지형이 삼태형이라 하고 뒷산은 태알형으로 생겼다 한다. 그로 인해 삼막굴이라 부르며, 옛날에 산막이 있었다 하며 산막이라고도 한다.

골뚝은 뚜드령이 남쪽 골짜기에 있는 마을로 골짜기에 있어 골뚝이라고 하며, 옛날 공씨(孔氏)들이 처음 정착한 곳이라 한다.

물그배 서남쪽으로 개명골 또는 개망골이라는 곳이 있는데, 개명이라고도 하며, 처음 마을이 생겼을 때는 크게 이름을 떨쳤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뚜드령이 서쪽 마을을 정저굴이라 하는데, 마을 입구에 큰 느티나무가 있어 정자나무골이라 하던 것이 변한 지명이라 한다.

당정3리는 물리마을 또는 물그네라 부르는데, 수원지가 생기기 전 산이 높고 마을 앞에 맑은 물이 흐르던 시절 여리골재를 넘어가려면 산짐승이 무서워 10명이 모이기를 기다려 넘었다 한다.

수리넘어재를 넘기 위해서는 냇물을 건너 맑은 물 앞에서 그 물을 마시며 20



〈사진 11〉 당정리 앞 바다

명이 모여들기를 기다려 넘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게 되었다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다. 또한 장승이 서 있었던 곳이라 장승백이라고 부르는 지역이 있다.

당정리는 서해안고속도로 골재 채취를 위해 토사를 채취하던 중 1996년 6월에 서천군 향토문화연구회에서 청동기시대의 것으로 추정되는 무문토기조각이 다수

발견되어 당국에 발굴 의뢰 했었다. 그로 인해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서 안전표지판 등이 전혀 없는 채 물이 고인 웅덩이에서 1996년 8월 18일 어린이들이 놀다 3명이 익사하는 사건이 발생되기도 했다. 이러한 우여곡절을 겪었던 이곳은 대규모 선사유적지로 관심이 모아져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가 26필지 총 1만3천여 평의 농경지 및 임야에서 발굴을 시작했다. 그곳에서는 선사시대 것으로 추정되는 무문토기 등 다량의 유물과 주거지, 묘자리 등이 발굴되었다. 그러나 무절제한 토사채취로 상당부분이 이미 훼손되어 있어 향토사학자들의 아쉬움을 남기기도 했다.

뚜드렁이에서는 전에 동제를 지냈었으나 세월이 흐르면서 개인제로 변하여 큰 서낭이나 작은 서낭 중 한곳을 택하여 서낭제를 지내고 마을 삼거리에서 거리제를 지낸 후 바다에 나가 용왕제를 지냈다 한다.

당정리에서 산천리로 넘어가는 고개를 열우고개라 하는데, 이 고개 좌측 능선에 고분이 위치해 있다.

당정리에는 한동안 건축폐기물장이 들어서기로 해서 주민들이 반대하는 등 집단 소요가 일어나기도 했었다.

장구리(長久里)

장구리는 백제 때 비중현에 속했었으며, 신라때는 서림군의 영현인 비비현에 속했고, 고려 때는 임천에 속한 비인현 소속이었다. 1413년 조선 초 비인현이었으며, 조선 말 비인군 일방면의 지역으로 지형이 장구처럼 곳을 이루고 있어 장구리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개편시 창촌리, 물거리, 당동리의 각 일부를

병합하여 장구리라 해서 서천군 종천면에 편입되었다.

장구리는 1·2·3리로 나누어지는데 점촌이라 불리는 장구1리에는 영수암이 자리 잡고 있으며, 그 아래 자광원이라는 고아원이 있었다 하나 지금은 폐쇄되고 개인 살림집으로 되어있다. 뒷산은 테피산으로 등산 형상이라고도 하며, 테피산 성이 석축되어 있다.

점촌(店村)이라 부르는 것은 그릇점이 있었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며, 신송리 경계지역에 말무덤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이는 고려 말 왜구들의 대대적인 침범으로 서천포 일대가 피바다를 이루었을 때 싸움에서 죽은 왜구들의 시체가 보기 싫어 강변에 운반하여 전사한 우리나라 군사들과 합장하였다 한다.

점촌 뒤에 있는 골짜기를 최가마골이라 부르는데, 최씨가 불을 피워 그릇을 굽던 그릇 가마가 있었던 골짜기라서 붙여진 이름이라 하며, 그 가마터는 현재 폐지되었고 마을에 한 곳의 가마터가 남아있으나 일부분이 훼손되어 민가가 들어서 있다.

북동쪽에 참새골이라 부르는 곳은 찬샘이 있어서 물맛이 좋고 약효가 있는 샘이었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며, 현재 두 가구의 독립가옥이 자리 잡고 있다.

영수암 아래에 있던 고아원은 한국전쟁 고아를 모아 운영했었다 하는데, 5·16 후 재단법인으로 등록하지 못하여 폐쇄되었다고 한다.

이 마을에는 박갑례 씨를 위시한 주민들의 따뜻한 미담이 있는데, 이 마을 출신으로 후손이 없는 무의탁자가 1백여 년 전에 마을에 동답 1천 3백여 평을 기증하여 그동안 이장이 이를 경작했으며, 매년 음력 10월 20일에 마을주민들과 공동으로 제사를 지내주고 있다. 그러던 중 그 묘지가 낡아서 1993년 3월 4일 당시의 이장 박종수 씨와 대동회장 유운상 씨 등이 주축이 되어 마을 기금 130만원을 들여 무의탁자의 묘를 보수하고 묘비를 세워주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당시 행사 때 그해 칠순을 맞는 박갑례 씨(子김구태)가 2월 27일 치뤄야 하는 칠순잔치를 생략하고 그 비용으로 3월 4일 산소 보수 정비시 마을사람들을 대접하여 훈훈한 정이 넘치는 이야기를 남기고 있다.

높다란 돌매산이 내려다보이는 곳에 종천면에서는 가장 많은 주민이 살고 있는 장구3리는 60년 전 쯤에 비로소 마을이 제대로 형성된 곳이라 하며, 1950년 말 경부터 융성했다고 한다. 전에는 밭이 많아 주로 밭을 많이 경작했으며, 장구리 고구마가 인근에서 유명 했었다 한다.

4·19 이후에 신검리에 개복다리 저수지가 생기고 그 저수지물을 이용해서 논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부터 부촌을 형성하기에 이르렀다.

장구3리에는 뒤번데기라 부르는 곳이 있는데, 한국전쟁 이후 이재민들이 자리

잡았던 곳이라서 이재민촌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조선시대 장구만 부둣가에 창고가 있었다 해서 창촌이라고 부르는 지역이 있고, 지금은 농경지로 변한 곳에 디딤돌이라는 큰 돌과 비석이 있었다는데 그 유래는 전해지지 않고 있다. 일제강점기에는 농업학교 학생들을 교육시켰던 곳이라 해서 훈련소라고 부르는 곳도 있다.

이밖에도 갯장구라 부르는 지역과 물장구라 부르는 지역이 있으며, 물장구 남동쪽으로 있는 마을을 용머리라고 부르는데 마을 지형이 용의 머리처럼 생겼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 하고 벌굽이라 하는 곳은 벌판을 아래로 하고 자리 잡은 마을이라 한다.

장구리 뒷쪽으로 있는 마을을 뒷말이라고 부르며, 장구지 원마을인 원장구에 당터가 있는데 이곳에 산제당이 있어서 옛날에는 마을 사람들이 크게 위했다고 전해진다.

이 마을에는 제민창이 있었다고 전한다. 제민창이란 조선시대에 기문과 폭우 등으로 흉년을 맞게 되었을 때 기근에 허덕이는 빈민을 구제하기 위하여 설치하였던 창고의 하나이다.

비인 제민창은 1764년(영조 40)에 재직한 관찰사 윤동승(尹東昇)에 의하여 현 지명 중천면 장구리 갯장구리 부락에 1764년 2월 25일 터를 닦기 시작하여 동년 4월 3일 상량하고 동년 5월 25일 준공하였다 한다. 이 사실은 충청읍지 비인현 제민창 창건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자세히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비인 문수산 아래 포구 장구리에 터를 잡았는데 그 지세가 심히 좁아 말로 운반함이 좋고 서쪽으로 큰 바다가 있어 배에 실어 왕래하기가 편리하다. 따라서 창고를 세워 곡식을 비축하기에 적당하다.

창고는 5동으로 37칸이며, 각 고을에서 일보는 청사가 7칸, 이속이 지키는 곳간이 30칸이었다. 건축 비용은 사용한 나무가 1천 3백여부, 철이 1천 7백근, 돈이 2천 2백 9꾸러미, 백미가 390여석, 목수가 136인, 부역 인부가 1만 2천 5백30인이고 기와는 91일동안 만들어낸 양이었다 한다.

창고의 비축량은 3만석으로 하고 남포·서천·홍산·한산·비인 5읍이 해마다 3만석을 언제나 저축하여 흉재 만난



〈사진 12〉 제민창 터

고을이 있으면 나누어 구휼했다 한다.

따라서 현재 장구리 갯장구리에는 창터라고 부르는 지명이 남아있는데, 이곳이 바로 제민창 터이다. 이곳에는 주초석, 계단석, 기와편, 자기편이 산재되어 있어 제민창 터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그곳에는 서천군수 이현우가 세운 비석(1887년)이 남아있는데 내용으로 보아 제민창을 증수하고 세운 것으로 보인다.



〈사진 13〉 영수암

영수암 후록을 따라 올라가면 산정에 위치한 테피식 산성인 장구리 산성을 확인할 수 있다. 장구리 점촌마을에서 보면 등잔형국(燈)을 하고 있는데, 꼭 등잔의 끝 부분이 솟은 것처럼 되어 있어 그렇게 부르고 있다. 성내에는 평평한 지역이 거의 없고 중앙을 중심으로 사방으로 기울어져 있고, 우물이 한곳이 있으나 현재 물이 나지 않고 있다. 성내의 수습 유물은 기와편과 경질 토기편이 있고, 성 주변에서는 연질토기편, 경연질토편, 미완성 마제석기 등과 자기편 등이 다수 분포되어 있다. 또한 성과 절의 관계를 밀접하게 볼 때, 전에는 영수암이 이 성내에 있었다고 한다.

화산리 (花山里)

꽃매산(화산봉)아래 자리 잡고 있는 화산리는 중천면 사무소가 있으며, 재미있는 지명이 많은 마을이다. 화산리는 3·1 운동 당시 마산면 신장리에 이어 2천여 명이 모여 우리고장의 마지막 독립만세 운동을 벌였던 충절의 고장이기도 하다.



〈사진 14〉 꽃매산 전경

백제 때 비중현에 속했고, 신라때는 서림군의 영현인 비비현에 속했으며, 고려 때는 임천의 비인현 소속이었다. 1413년에 비인현 이었고, 조선 말 비인군 이방면의 지역으로 꽃매산이 있다 하여 꽃매 또는 화산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화평리, 상화리, 하화리, 하내리의 각 일부와 서천군 장항면의 구암리 일부를 합하여 화산리라 해서 서천군 중천면에 편입되었다.



〈사진 15〉 아랫새마을과 화산뜰 전경



〈사진 16〉 종천면사무소

화산 서남쪽 골짜기를 가자굴이라 하는데, 골짜기 물이 흐르는 곳에 가제가 많다 해서 가자굴이라 부른다고 전한다. 장구리로 넘어가는 고개를 수리넘어재라 하는데, 고개가 매우 험하여 옛날에는 혼자 넘어다니지 못했다 하며, 지형이 독수리 같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도 전해진다. 지금은 공원이 들어서 있고 길이 새로 뚫렸다. 수리넘어재에 있는 샘을 금배샘이라 하며, 이

샘물은 약효가 있다고 전해진다.

화산 동남쪽에 있는 들을 모래가 많아 모래들이라 하고 남쪽에 있는 긴 둑병을 진둑병이라 부르며, 서북쪽 골짜기는 옛날에 조밭이 많았던 골짜기라 조밭굴이라 부른다.

화산 남쪽에 있는 마을을 이재민촌이라 하는데, 이재민들을 위해 새로 마을을 이룬 곳이라 한다.

꽃매산 아래에는 윗샘이라는 샘이 있으며, 물이 차고 약효가 있어 많은 사람들이 찾아들었다 하고, 동북쪽에 있는 논을 장승이 있던 곳이라 장승백이라 하며, 장승백이 서남쪽에 화산이 자리 잡고 있다.

화산은 상화 또는 윗새말과 하화 또는 아래새말로 구분해서 부르며, 아래새말 남쪽에 있는 다리를 흰다리 또는 오석리로 통한다 해서 오석교라고 한다. 서북쪽 골짜기에는 옛날 절이 있었다는 절터골이 있으며, 솟대가 있어 수호신 역할을 했다는 솟대배기가 있다.

종천초등학교가 이 마을에 있었으며, 지금도 그 건물이 남아있다.

물이 맑고 경치가 좋으며 서천읍 소재지가 가까이 있어 배후지역으로의 역할이 기대되는 지역이다.

산천리(山川里)

종천면사무소를 지나 시멘트로 깔끔하게 포장된 길을 따라 가다보면 뒷산에 포근히 안긴 듯한 아늑한 마을이 나온다.

산천리는 산이 깊고 물이 맑다 하여 산천리라는 지명이 붙여졌다 하며, 일명 못치레라고도 부른다. 그 이유는 마을 앞에 3백여 평 크기의 못이 있었는데, 농경지로 이용하기 위해 못을 메웠으나 물이 계속 솟아나고 있어 그렇게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자연 휴양림이 자리 잡고 있는 산천리는 백제 때 비증현에 속했고, 신라때는 서림군의 영현인 비비현에 속했으며, 고려 때는 임천의 비인현 소속이었다. 1413년에 비인현에 속했다가 조선 말 비인군 이방면의 지역으로 상내리와 하내리, 외산리 각 일부를 합하여 산천리라해서 서천군 종천면에 편입되었다.

산천리는 1리 상내리, 2리 하내리로 구분되며, 1리는 윗말이라고도 하는데 산천리에서 으뜸 되는 마을로 위쪽에 자리 잡고 있다. 윗말 서쪽에 있는 산은 당매 또는 당산이라 하는데, 산에 산제당이 있었다 한다. 마을 뒷산에는 정적골이라는 깊은 골짜기에 여루고개가 있는데 골이 깊어 맹수 등이 나



〈사진 17〉 산천리 마을 전경



〈사진 18〉 산천리 은행나무



〈사진 19〉 산천리 고인돌

타나 혼자서는 갈 수 없고 10여 명이 함께 넘어야 한다고 해서 여우고개라 부른다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다.

산천1리는 진주 김씨가 50호 가까이 되는 씨족마을이며, 마을에는 진주 김씨 시조 김무진의 사당인 홍산사가 있어 매년 정월 스무하룻날 각지에서 찾아드는 사람들을 비롯해 1백여 명이 모여 제사를 지낸다고 한다.

산천2리는 보호수인 은행나무가 마을 가운데 있고 별뚝, 용고개, 발땀, 독밭, 장밭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별뚝은 관청이 있을 당시 별서는 사람이 있었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 하며, 들판에 마을이 형성되어 그렇게 불린다고도 전해진다.

용고개는 용재라고도 하는데, 이곳은 옛날 이무기가 백년수도를 해서 승천한다는 고개라 하며, 관청에서 이곳에 오려면 용고개에서 부터 말에서 내려 걸어왔다고 한다.

발땀은 발이 많다 해서 붙여졌고, 독밭은 돌이 많아 붙여진 이름이라 하며, 장밭이라는 곳에는 옛날 장이 섰다고 한다.

산천리에는 3기의 고인돌 유적이 있다. 1972년 이곳에서 간돌칼이 출토되어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보관중이다.

산천리 고인돌은 서천군내에서 가장 크고 뚜렷하게 꺾임돌이 들어나 있으며, 고인돌이 위치한 곳은 산으로 둘러싸여 동쪽만 트여있는 곳으로 개간에 의해 일궈진 들 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 덮개돌의 크기는 긴 쪽이 360cm, 짧은 쪽이 100cm 정도 크기이다.

홍산사를 지나 소로를 따라가면 백제고분이 있으나 파괴되어 있는 상태이고, 조금 더 올라가면 또 하나의 고분이 파괴가 덜 된 상태로 있다. 그리고 좀 더 가다보면 고려시대에 쌓은 것으로 추정되는 산천리 산성의 석성이 확인된다. 산천리 산성은 전면은 석재로 축성했고, 동쪽과 남쪽은 천연의 절벽을 그대로 이용한

것이 특징이라 하며, 동쪽 바로 밑 절벽에는 이동백의 용굴이 있다 한다.

산천리에는 이밖에도 별신제를 지냈다는 돌탑이 있는데, 이는 탐할머니와 탐할아버지를 위한 별신제였다 한다.

산천리에는 개등사지가 있는데, 상부마을 뒷산인 희리산 중턱에 있는 사지로 산천리 산성 약 20m 아래 자리 잡고 있으며, 사지로 추정되는 곳은 좌측에 큰 바위가 기울어져 있고, 그 옆



〈사진 20〉 희리산 자연 휴양림

으로 평평한 대지가 50m×20m 정도의 뚜렷한 모습으로 자리 잡고 있다. 전면은 석축 되어 있었으나 붕괴되어 있고, 좌측 큰 바위 밑에서 납석이 발견된 바 있다고 한다. 사찰의 규모나 연대 등은 전해지지 않고 있다.

산천리 저수지 계곡을 따라 2km 정도 가면 계곡의 중턱에 정려굴사지가 있다. 주변 환경은 좌·우측 능선으로 싸여 있으며, 뒤는 급경사를 이루고 사지 우측으로는 계곡물이 흐르고 있다.

건물지는 10m×5m 크기의 장방형 사지에 석축렬이 남아있고, 그 앞에는 3~4단의 축대가 약 20m 정도 동서로 길게 쌓여져 있으며 부분적으로 붕괴되어 있다.

주변에는 조선시대 것으로 추정되는 와편이 산재해 있고, 인화문 덩벙문 분청사기가 눈에 띈다하며, 조선중기 사찰지로 추정된다.

주민의 휴식공간 조성과 청소년들에게 자연학습 공간을 마련해 주기 위해 산천리 희리산에 해송자연휴양림이 조성되어 있다. 또한 메주마을로 지정되어 지원금을 받아 마을에 공장을 세우고, 메주와 된장, 고추장 등을 만들어 소득을 증대시키고 있다.

도만리(都萬里)

명창 이동백이 태어난 마을이며, 북쪽으로 희리산이 병풍처럼 마을을 포근히 감싸 안고 있는 지역이다.

도만리는 백제 때 비중현에 속했고, 신라때는 서림군의 영현인 비비현에 속했다. 고려 때 임천의 비인현이었다가 조선 말 비인군 이방면의 지역으로 도마니



〈사진 21〉 도만리 전경

또는 도만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당시 도만리와 서천군의 당산리를 합하여 도만리라 해서 서천군 종천면에 편입되었으며, 이방면이었을 당시 면사무소가 위치해 있던 마을이다.

도마니는 서쪽에 자리 잡은 마을인데 풍수설에 따르면 마을이 많이 들어서서 차츰 큰 고을을 이룩할 지형이라고 한다. 고려 말에

는 왜구의 대대적인 침입으로 마을이 전소되었었다 하며, 조선 초 당시 이룩되었다고 전한다.

도마니 동쪽으로 자리 잡고 있는 마을을 곱장골이라 하는데, 동쪽에 곱장모랭이가 있고 산과 들로 첩첩이 싸여진 안에 마을이 있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 하며, 주변의 산이 노루가 구부리고 있는 형국이라 해서 곱창골이라 했다는 얘기도 전해지고 있다. 또한 장군대좌(將軍大座)와 옥녀직금(玉女織錦)형의 명당이 있다고 전하는데 실제로 앞산을 일컬어 벼들의 도투마리로, 희리산에서 마을로 뺨은 산자락을 북으로 흥림저수지 물을 북물로 연관지어 설명하는 말이 전해져 온다.

조선조 5백년 역사상 벼슬을 받고 통정대부(通正大夫)로 고종과 순종의 총애를 받던 국창 이동백은 이 마을에서 태어나 마을 뒷산인 희리산에 있는 병풍바위에서 득음(得音)을 하였으며, 용당굴 앞에 있는 소나무 30그루를 엮어 움막을 짓고 용당굴의 맑은 물로 세수하며 독공을 했다고 한다. 지금은 많이 메워진 용당굴에 있는 물은 바다로 통해 있어 바닷물이 들고 날 때 물이 불고 줄었다 하며, 그 속에서는 딸그랑거리는 소리가 들려 왔는데 그것은 물을 뜨다 놓친 밥그릇 뚜껑으로 인한 것이라는 전설이 전해진다.

지금도 마을에는 이동백 생가와 그 옆에 지난 1990년에 군에서 세워놓은 가로 70cm, 세로 60cm의 와비형 기념표석이 있다.

마을에는 민가와 어울려 자리 잡은 수도사가 있는데, 1992년도 절 앞에 660cm의 미륵을 세워 많은 불자들이 찾아들고 있다.

이 마을은 또한 도집강 조영구 선생이 태어난 마을이다.

조영구 선생은 현재 이곳에 살고 있는 조해연 씨 조부로 19세에 동학에 입교하여 1894년 7월 도집강으로 임명 받았다. 손자 조해연 씨에 의하면 조부가 96세

때 구암리에 사는 세도가 양주 조씨 조영희라는 사람이 자기 부인의 묘를 쓰기 위해 본인의 증조부 묘를 파낸 것에 분함을 참지 못하고 이를 말리자 그들로부터 매를 맞아서 8개월 동안 앓아눕다 세상을 떠났다고 한다. 조영구 씨는 이 이야기를 들으며 자라다 울분을 참지 못하고 할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 동학에 입교 했다. 그 후 조영구 선생은 군수에게 건의하여 조영희 부인(이완용 누이동생)의 묘를 종천면 화산리 영수암 가는 길처에 이장하고 조부의 묘자리를 되찾았다 한다. 조영구 선생의 생가는 도만리의 꼭대기집인데 손자가 살고 있으며, 동편 능선을 타고 올라가다 보면 비석이 세워진 조영구 선생의 묘가 있다.



〈사진 22〉 이동백 생가

지석리(支石里)

지석리는 마한(馬韓) 때부터 인류가 정착하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이다. 완전한 부족연맹체(部族聯盟體) 있었다는 기록은 없으나 인류의 정착을 신석기시대로 추정하고 있다.

백제 때는 비중현 소속이었으며, 신라때는 서림군의 영현인 비비현에 속했고, 고려 때는 비인현 소속이었다. 조선 태종 13년에 비인현이었다가 조선 말 비인군 이방면의 지역으로 고인돌이 있다 해서 관돌, 관돌 또는 지석이라 했는데,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화오



〈사진 23〉 지석리 마을 전경 사진

리, 발계리, 동지리 각 일부와 서천군 장항면 화호리 일부를 합하여 지석리라 해서 서천군 중천면에 편입되었다. 백제 때 비중현의 고을이 이곳에 있었다 한다.

지석리 깊숙히 숲과 산속에 있는 마을을 속뜸이라 하는데, 마을 안쪽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화오리는 옛부터 신선이 모여 살 수 있는 고을이라 해서 한양에서도 널리 알려진 마을이다. 새가 많고 들이 좋아 선계(仙界)를 연상케 하는 마을이라고 전해진다.

정렛굴은 서쪽골짜기를 일컬으며 옛날에 정려(旌閭)가 자리 잡고 있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며, 정렛굴 동쪽으로 있는 마을을 수소라 하는데 지석리에서 가장 큰 마을로 큰 소(沼)가 아름다워 마치 산수화를 수놓은 것 같다 해서 수호(繡湖)라고도 불렀었다 한다.

수소 서쪽으로 큰 골짜기에 있는 마을을 황골이라 하는데, 옛날에 큰 마을로 백제 때부터 자리 잡은 마을이라 한다. 속뜸 건너에는 건너뜸이라는 곳이 있고, 동쪽에 있는 들을 동문들이라 하는데, 백제 때 비중현의 읍성인 동문이 있었던 들이라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동문들 서쪽으로 마을 뒷산에 고인돌이 있다 해서 관들이라 부르는 지역이 있다.

지석리 속뜸에서 도만리로 넘어가는 고개가 있는데, 이 고개를 굽은 노루라고 부른다. 또한 곡장(曲獐)이라고도 하는데 고개가 마치 노루가 꾸부리고 있는 것 같다 해서 붙여진 지명이라 한다. 동문들 안으로 자리 잡은 논을 옥거리라 부른다. 이는 백제 비중현의 고을이 있을 당시 옥이 있었던 자리라 한다. 병풍바위 아래로 소(沼)가 있는데 이곳을 용추(龍湫)라 하며, 옛날에 용이 살았던 소라 마을사람들이 제사를 지내기도 했다고 전해진다. 비인현의 발상지였던 이 마을에는 귀중한 고적이 많이 있으며 높이 1.3m되는 석탑이 있다.

이탑은 고려시대 만들어진 탑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원래는 희리산 문수사에 있던 탑인데 일제강점기에 일본인이 가져가는 것을 지석리 주민들이 빼앗아서 지금의 자리에 세웠다고 한다.

희리산은 높이 329.3m이며, 최고봉으로 문수봉이 있고 전설로도 유명하다. 문수봉 밑에 장사 4인이 놀던 자리에 고누판이 그려져 있다하여 4인대라고 부르는 곳이 있다. 그 밑으로 140m 떨어진 절벽에서 장사들이 턱걸이를 한 장소가 있는데 이곳을 턱걸이장이라 하며 턱걸이장 밑으로 문수사라는 절이 있었는데 주위가 절벽이 험하고 빈곳이 많아 사람들이 모여살 수 없어 절을 헐어버렸다고 한다.

또한 문수봉 남쪽 500m 전방에는 장사들이 능선을 따라 말을 타고 무예를 익히던 장소가 있으며, 동쪽 550m 전방쯤에 말뚝바위가 있고, 그 밑에는 줄병들이

거처하던 1백여 개의 작은 바위가 있는데, 이를 줄병바위라고 전한다.

문화재 자료 131호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는 지석리 석탑은 지석리 건너뜰에 있으며, 높이가 1.3m 정도 되는 조그만 탑으로, 만들어진 연대에 대한 확실한 기록은 없으나 조각의 형태로 보아 고려 말에서 조선 초기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탑은 하단에서부터 상단으로 오를수록 축소형 옥신(屋身)의 구조를 갖고 있으며, 아랫기단에는 한면에 3개의 안상(眼象)을 조각했고, 상갑석(上甲石) 주변에는 사방에 연화문(蓮花文)이 7개씩 양각(陽刻)되어 옥개석 받침은 3단으로 되어 있으며, 최상부에는 연화문을 새긴 복발이 얹혀 있다.



〈사진 24〉 지석리 석탑

지석리 권들마을 뒷산에 있는 돌무덤을 지석묘(支石墓)라고 부른다. 지석묘는 여러 개가 분산되어 있는데 모두가 남방식 지석묘다. 지석묘를 일명 고인돌이라고 하는데 신석기시대에 걸쳐서 이루어진 거석기념물(巨石記念物)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대륙문화의 영향권에서 고인돌의 매장지라고도 하는데, 충남에는 금강유역을 비롯해서 서해안 특히 하천, 소(沼)부근에서 많이 발견된다.

지석리에서 고인돌이 발견된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라, 충남도의 서편문화권에 속하는 인류의 이동에 따라 대산반도(大山半島)를 기점으로 남쪽으로 이동하는 인류의 이동이 해안지방으로 내려오다가 내륙지방을 택해서 정착하기 시작한 것이 마한시대에 이미 부락을 형성하고, 백제시대엔 큰 고을로 비중현의 고을이 바로 이곳에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이곳에서 발견되는 지석묘는 신석기시대부터 철기시대로 접어드는 사이에 사람들이 살았다는 증거이며, 또한 그들의 무덤인 것이다. 비중현은 뒤에 현 비인면 소재지로 그 고을이 옮겨가나 비인현의 발상지로 귀중한 고적이 묻혀 있는 지역에 지석묘가 있는 셈이다.

석촌리(席村里)

석촌 1리에는 1991년도에 7만 6천여 평의 농공단지가 조성되었다.

백제 때 비중현에 속했었으며, 신라 때는 서림군의 영현인 비비현 소속이었다가, 고려 때 임천에 속한 비인현 소속이었다. 1413년 비인현이었으며, 조선 말 비인군 이방면의 지역으로 돛바위가 있으므로 돛대바위, 돛바위 또는 석촌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당시 석서리, 내석리, 흥덕리, 죽동리, 석동리, 담화리의 각 일부와 서천군 장항면의 화호리 일부를 합하여 석촌리라 해서 서천군 중천면에 편입되었다.

『여지도서』 비인현 방리조에서 석촌리를 확인 할 수 있는데 이에 의하면 이방면의 소속으로 관문으로부터 남쪽으로 30리 떨어져 있으면 호수는 107호, 남자는 182명 여자는 211명(席村里自官門南距三十里編戶一白七戶內男一白八十二口女二百一十口)이라는 기록을 보아 상당히 큰 규모의 마을이었음을 알 수 있다.

석촌리는 1리와 2리로 나뉘어진다. 석촌1리는 마을 일부에 흥림저수지가 연결되어 있으며, 물이 좋아 농사짓기에 편리한 마을이고 마을이 배형상을 닮았다 해서 돛바위라고도 부른다. 당산제 기슭에 있는 바위가 돛대처럼 생겼다 해서 유래되었다고도 전해지며, 돛바위 동쪽에 위치한 마을을 동역이라고 부른다. 이에 따른 마을에 배와 연결되는 닷고개 등의 지명이 있다.

이와관련해서 ‘마을에 샘을 많이 파면 물이 나와서 배가 침몰한다’거나 배에 짐이 많으면 배가 침몰하기때문에 ‘마을에서 부자가 되면 배가 가라앉지 않도록 마을을 떠나야 한다’는 전설이 전해 온다.



(사진 25) 석촌리 농공 단지

석촌2리는 석촌1리를 지나 얇은 고개를 넘어서 자리 잡고 있다. 마을 안쪽에 안골이라고 부르는 지역과 대나무가 많아 죽동이라는 지역, 뒤쪽에 있다 해서 뒷골이라고 부르는 지역 등으로 나뉘어지며, 옛날에는 문산면과 경계지역의 고개에 성황당이 있어 매년 제사를 지냈다 하는데, 용왕당의 제사형식과 비슷한 제사를 지냈었다고



〈사진 26〉 석촌리 마을 전경

전해지며, 이는 돛바위가 있었던 것과 연관이 있는 듯하다. 또한 각각의 자연마을에는 큰 탑과 작은 탑이 있어 당산제를 지낸 후에 그곳에서 탑제를 지냈다. 현재는 당산나무는 보존되어 있으나 돛바위 마을의 큰 탑만이 흔적을 남기고 있을 뿐, 나머지 탑들은 지명으로만 전하고 있다.

마을에는 효자 이황(李瑄) 정려(旌閭)가 동산에 위치하고 있다. 전주이씨 이황(1785~1836)의 효행을 기리기 위하여 1847년에 명정된 정려이다. 이황은 효령대군의 후손으로 1812년 아버지가 역모에 연루되자 그 무고함을 밝히기 위하여 손가락을 잘라 혈서를 써 관에 진정하기도 하였고 부친의 병에 변을 맛 보는 등으로 정성을 다하였다. 돌아가신 뒤에는 모든 예의를 갖추어 장례를 치르고 40여년을 하루같이 몸을 단정하게 하여 칭송이 자자하였다 한다. 방백과 어사가 효자로서 포계(褒啓)하여, 1847년(현종 13)에 효자의 명정을 받았고, 1859년(철종 10)에는 동몽교관의 증직이 내려졌다. 현재의 건물은 1970년대에 단청을 하여 보수한 것으로 정려 앞에는 2005년에 건립한 정려비가 세워져 있다.